

아이디어, 기술만으로 시작하는 창업

- 1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 2 청년창업사관학교
- 3 제조기반창업아이템상품화지원사업
- 4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사업
- 5 연구원특화형예비창업자육성프로그램
- 6 맞춤형창업사업화지원 사업
- 7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우수지원사례 ① '11년 대한민국 발명대전 은상 수상
<'11년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사업-(주)주성엔지니어링 연계기업>

우수지원사례 ② 국내 최초 고속영상압축전송기술력 자랑
<'1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CEO>

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사업

우수기술 기반의 창업준비금 지원

대학,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기술창업자의 창업 준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총 171억원, 총 사업비의 70%한도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협약종료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1년 미만)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09~'11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선정자 등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는 제한적 지원(추후안내)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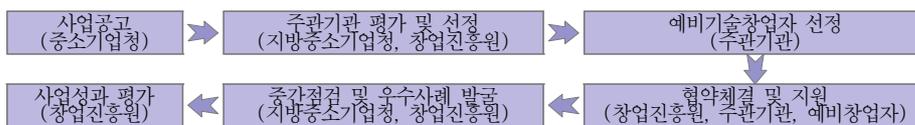
- 대학·연구기관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 조건부로 지원

신청·접수 주관기관 : 추후 별도안내
예비기술창업자 : 추후 별도안내

-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042-480-4341~4

2 청년창업시관학교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순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142.5억원,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5% 이상, 현물 25% 이하)

지원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 단, 신청과제의 특허보유,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대기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의 분사창업(예비창업자만 해당)인 경우는 신청연령 제한 없음

지원이 안 되는 자

- '09~'11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선정자 등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는 제한적 지원(추후안내)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등

지원 업종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 내용

- 창업공간 : 시관학교(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외) 창업준비 공간 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코칭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비 지원
- 연계지원 : 우수 청년창업CEO를 대상으로 투·융자, 보증, 입지, 판로 등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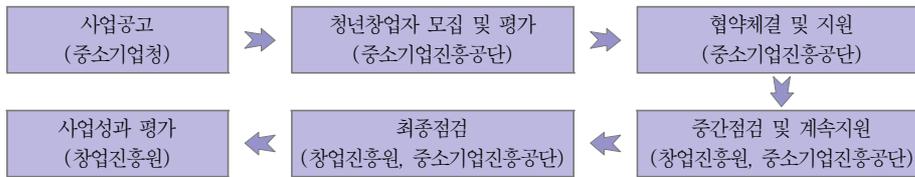
신청 서류

- 사업참가(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 접수 : 1월 중
 - 2차 접수 : 2월 중
-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 031-490-1372,3

3 제조기반창업아이템상품화지원사업

제조분야 우수아이템 상품화지원

제조분야의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화 기획, 시제품 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지적재산권 확보,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총 25억원, 총 사업비의 70%이내(5천만원) 지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1년 미만)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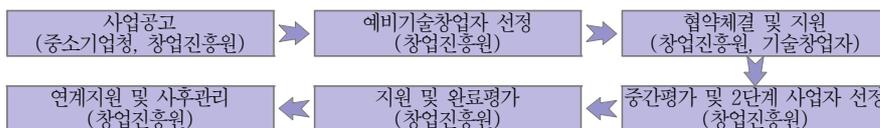
- 사업지원 내용에 따라 단계별 지원
 - 1단계(사업화 기획, 시제품 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등), 2단계(지적재산권 확보, 마케팅 등)을 지원
 - ※ 2단계 사업자 선정은 1단계 사업 완료자를 대상으로 평가·선정하고, 미 선정자는 1단계 사업에서 종료

신청·접수 2012년 1월 중~ 2월 중

-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042-480-4330, 4335, 4331, 4336

4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선도벤처기업연계의 성공 노하우 전수

성공한 선도벤처기업의 성공 노하우 전수 및 기술창업자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한 성공창업 유도 및 미래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총 45억원, 45개 창업팀, 총 사업비의 70%이내 9천만원 한도

지원 대상 우수 아이템의 개발을 통하여 선도벤처기업과 협업 등 전략적 제휴관계를 희망하는 기술창업희망자(팀)

*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한지 1년 이내인 자 또는 협약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선도벤처기업이 육성하고 싶은 예비창업팀을 직접 선발하고 창업 준비공간, 전담 멘토링, 사업 기획, 기술보완, 국내외 마케팅(판로개척) 등 지원
- 창업팀의 창업 준비활동 및 시제품 개발 자금을 창업 조건부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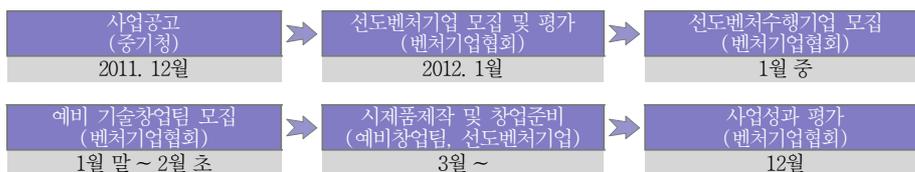
신청·접수 선도벤처수행기업 : 2012. 1. 16 ~ 2012. 1. 31 (예정)

예비창업팀 : 2012. 2. 20 ~ 2012. 3. 2(예정)

-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 단 선도벤처수행기업의 경우 주관기관(벤처기업협회)에 직접신청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사)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 02-890-0623, 0627

5 연구원특화형예비창업자육성

연구원 기술창업자 집중사업 지원

성공가능성이 높은 연구원 출신의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디자인 및 경영 컨설팅, 마케팅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총 22.2억원, 20개 내외 창업팀, 총 사업비의 70% 이내 10백만원 한도

지원 대상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희망하는 자

- *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팀(연구기관 재직중인 연구원이 1/2이상 포함)
- * 최소 2인 이상의 팀으로 신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연구원 근무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자이어야 하며, 계약직 연구원도 기본요건 충족 시 참여 허용
- *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석사이상 수료한 대학원생의 참여허용

지원 내용

- 연구원 특화 창업지원센터 입주지원(업무집기 및 관리비 전액지원)
- 기술개발 Track(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계·특허취득 등)
- 마케팅 및 경영지원 Track(창업, 고객반응 및 시장조사, 디자인 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회계 및 투자유치 등)

신청·접수 2012년 2월(별도 공고)

-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042-480-4391

6 맞춤형창업사업화지원

수요자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수요자 선택방식을 통해 창업수요자에게 지원분야 및 주관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총 300억원, 지원분야에 따라 40백만원~100백만원

* 창업분야별 지원 금액은 기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및 인원 조정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 단, 창업분야에 따라 일부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음

* 유망창업자 집중육성 지원사업(창업성과 특화형)의 경우,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 지원(예정)

지원 내용

- 기술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연계) : 시제품개발비, 마케팅비 등
- 아이디어특화(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연계,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지원사업연계) : 시제품개발비, 마케팅비 등
- 입소형, 준입소형 교육특화(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 : 창업공간, 창업코칭 및 교육 등
- 준입소형 교육특화(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 : 창업공간, 창업코칭 및 교육 등
- 창업성과특화(유망창업자집중육성지원사업) : 생산기반구축비, 제품개발비 등

신청·접수 2012년 3월~(별도안내)

-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042-480-4345~7

7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글로벌 청년창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창업교육 및 코칭, 현지 보육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31억원, 63개 창업팀 내외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기업

지원 내용 업종분야별 차별화 지원

- IT·SNS 분야 : 국내외 창업교육 실시 후 현지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통한 창업 및 투자유치 지원
- 첨단제조문화콘텐츠 분야 : 국내에서 심화 맞춤형 창업훈련 이후 현지 창업 지원

신청·접수 2012년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042-480-4331

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 ① '11년 대한민국 발명대전 은상 수상'
<'11년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사업-(주)주성엔지니어링 연계기업>

'열고 닫고' 재밀봉 가능한 캔 뚜껑 개발



미처 다 드시지 못한 캔(Can) 음료,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XRE(Xtra Resealable Easy Open End)서진혁 대표가 페트병처럼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재밀봉(Resealable) 캔 뚜껑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열고 닫고' 재밀봉이 가능한 캔 뚜껑 덕분에 일회용 혹은 저용량으로 한정된 캔 음료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XRE 서진혁 대표는 음료 패키지 관련 회사에 재직 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원과 함께 창업의 길로 들어선 그는 지난해 '선도벤처연계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주)주성엔지니어링의 지원을 통해 재밀봉 가능한 캔 뚜껑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780억\$ 시장에 도전장

지난 2009년 기준 전세계 포장용기 시장 규모는 3,900억\$로 이 중 캔 포장 용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0% 가량인 780억\$로 추정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캔 뚜껑은 1975년에 개발된 SOT(Stay On Tap) END 방식인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 캔 뚜껑 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 마디로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 하자면, i-phone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Smart Phone 대신에 다이얼 방식의 검은색 유선 전화기를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SOT END 방식의 캔은 이제 성장세가 꺾여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재밀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세계 유수의 다국적 포장 기업에서는 많은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해 재밀봉 가능한 캔 뚜껑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Bottle Can 등 재밀봉이 가능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기존에 비해 높은 원가 상승 부담으로 특정 제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1원으로 경쟁력 올리기

XRE는 이러한 가격 부담을 한 층 덜어냈습니다. XRE가 내세우는 핵심기술은 기존 SOT END와 90% 이상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현재 캔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부 생산 공정의 변경만으로도 재밀봉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제관 설비를 100% 활용하면서 최소 설비투자 비용으로 재밀봉이 가능한 캔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대로라면 현재의 SOT END 방식에 비해 원가 상승이 제품 원가의 1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원가부담 없이 소비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일회용 캔 고정관념 깨기

XRE의 서진혁 대표는 "이제 일회용 저용량 캔 음료가 아닌 휴대용 중·대용량 캔 음료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캔 음료는 재밀봉할 수 없어 한번 따면 다 마시거나 버려야 하며, 개봉한 상태로는 음료가 쏟아지거나 먼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탄산음료의 경우 신선한 맛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밀봉 가능한 XRE 캔이 출시되면 남은 음료수를 PET 음료와 같이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음료를 쏟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 대표는 “안정성과 휴대성, 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고 밝혔습니다.

공공을 위한 효과도 있습니다. 마시고 남아서 버리는 캔 맥주 150ml를 깨끗한 물로 정화를 하는데 2,100L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 대표는 “재밀봉 가능한 XRE제품이 상용화된다면 수질 오염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캔 음료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운송비용이 유리병, PET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아 운송 중 발생하는 Co2 절감에도 기여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그는 "PET 음료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변질의 우려 및 환경호르몬 검출 문제가 있지만, 캔은 장기간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아 유통기간에 대한 제조업체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캔 음료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PET와 유리병이 점유하고 있는 500ml 이상의 음료 제품에도 캔 제품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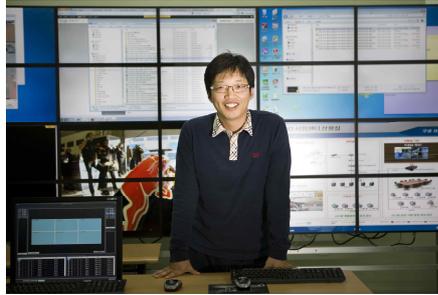
또한 서 대표는 END(뚜껑) 부분에 숨겨진 인쇄 공간을 활용하면 광고나 이벤트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캔 음료 시장의 판도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중기백이
떴다!

우수지원사례 ② 국내 최초 고속영상압축전송기술력 자랑
<'1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CEO>

현장의 문제점이 창업의 원동력 : 네트워크에 기반 '뷰플렉스'

(주)누리콘의 남일우(35세) 대표는 SI전문기업에 재직하면서 현장에서 부닥쳤던 수많은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찾은 과정이 창업의 동력이 됐다고 말한다. 그동안 영상전시분야는 값비싼 하드웨어장비가 필요한데다 수많은 케이블을 포설해야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현장에서 늘 맞닥뜨리는 문제였다. 남일우 대표는 무엇보다 “영상전시환경은 원래 그러려니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주)누리콘 남일우 대표

누리콘은 이 같은 영상전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인 영상전시·공유시스템 개발·제조 전문 기업이다. 누리콘이 그 해결사로 선보인 것이 바로 '뷰플렉스(ViewFlex)'. IP를 기반으로 영상케이블 연결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영상을 실시간 압축·전송함으로써 대규모 영상을 전시하고 네트워크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IP based Smart Video Wall 솔루션이다.

“뷰플렉스는 복잡한 영상 장비를 하나로 통합하고, 값비싼 영상케이블 대신 LAN 케이블,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면서 더 파워풀 합니다.” 뷰플렉스는 네트워크가 구성된 환경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시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영상전시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화제를 모았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발판으로 국내 최초 고속영상압축전송기술력 자랑

누리콘이 새롭게 선보인 뷰플렉스는 영상전시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동일 영상을 끊임 없이 '공유'하는 성능도 탁월해 국내 최초, 국내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받아 관련 특허는 물론 신기술인증(NET)도 획득하였다. “비유하자면, 뷰플렉스는 아날로그전화에서 디지털전화로 진화한 것이예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저희가 선발주자이고 경쟁업체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해외 솔루션 중에 경쟁제품이 있긴 해도, 가격경쟁력에서 뷰플렉스가 탁월합니다.”

이 같은 기술력이 제품으로 빛을 보기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가 큰 발판이 됐다. “현장에서 창업 아이템을 찾았고, 인적 구성도 완료했어요. 문제는 자금이었죠. 그때 청년창업사관학교가 탈출구가 돼 줬습니다.” 그동안 남 대표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던 기술력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소하면서 개발로 이어졌고 비로소 제품으로 구현됐다.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도 안산) 공동작업장 테스트 장면

더욱이 지난 5월, 공동작업장에 46인치 모니터 24개를 구축, 영상전시의 실제 테스트환경이 마련되면서 영업 마케팅에도 날개를 달게 됐다. “백 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테스트환경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뷰플렉스의 성능을 이해하고 장점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어요.

또, 이곳은 말 그대로 학교니까 선후배 관계가 형성되면서 멘토들이 큰 힘이 돼 줬어요. 기술 부문부터 경영,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경영 초보인 저희에게는 훌륭한 길라잡이가 되어줬어요.”

IT 넘어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만 해도 3천억 원을 웃도는 등 국내 영상전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누리콘은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칠 계획이다. 지난 9월에 이미 한 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진입에 성공했다. 2011년 3월 창업시 매출 1억 원을 목표로 잡았던 누리콘은 2011년에 3억 원을 기록했고, 내년에는 20억 원, 2013년에는 5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은 3년을 버티는 게 목표예요. 그동안 자리를 제대로 잡는다면 이후에는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P 기반 영상전시 및 교환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영상과 CCTV분야 등 네트워크 상의 모든 영상을 자유롭게 획득, 저장, 유통, 전시할 수 있는 영상처리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